주 일 예 배

오전11시, 오후3시 예배인도 이진우 목사

찬 양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다 같 이
조용한기도	Prayer	다 같 이
찬 송	Hymn 44	다 같 이
기 도	Prayer	남영아 집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 도 자
성 경	빌립보서 1:12-14	인 도 자
설 교	나의 당한 일로 복음의 진보를 드러내라!	이진우 목사
찬양과봉헌	Hymn 455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이진우 목사

■ 다음주 기도 : 박종갑 장로

예 배 와 모 임 안 내

주일1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2부 예배	**오후 3시**
수요성경공부	**매수 오후7시(예정)**
가정교회예배	**매주 금요일(예정)**

교회를 섬기는 이들

목회사역	**이진우 목사(Rev. Jin W. Lee)**
행정사역	**박종갑 장로**
양육사역	
찬양사역	

【자유교회 Vision 소개】

■ **자유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유일한 담임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자유교회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길 원합니다. 교회의 행정과 운영에 있어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할 것이며 실험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란 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교회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만약 교회가 부패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 건물이 노후했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우리 자신이 교회답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회복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교회가 지켜야할 지상최대의 명령입니다. 가깝게는 지역사회로부터 크게는 세계 각처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제적으로 헌금의 50%를 선교와 구제 그리고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은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권세와 문화에 좌우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2006년 9월 10일 제6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LIBERTY COMMUNITY
자 유 교 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자유교회 Liberty Community Church

34617 8th Ave SW Federal Way, WA 98023
Tel (253)661-5436(fax), 227-1775
E-Mail: graceofjesus@comcast.net

금주의 말씀요약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며, 옥중에서 기록하였다 하여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평안 속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1:12).** 바울은 이 유명한 신앙고백을 통해 성도에게 있어서 기쁨은 감정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 특별히 헌신된 성도의 고난의 문제는 우리를 늘 당혹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슬픈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실패했을 때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가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가름 하는 중요한 기준인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한마디의 의문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불평과 의심하기보다 기뻐했고 오히려 자신의 기쁨을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는 바로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깃들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당한 그 일 때문에 복음의 대로가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확신과 체험이 있었기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 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비록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바로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전파되어지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처음에는 이 고통과 이 시련의 의미가 무엇 때문인지를 몰랐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거기에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날들의 상처와 고통으로 힘들어합니다. 누구 한 사람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곤 지나간 날들의 상처와 고통을 지우려고 합니다. 없애려고 합니다. 쓰레기통에 던져 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후회나 상상도 이미 지나간 일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에는 내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싶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안에 있는 인생에게 있어 쓰레기통에 던져 버려야 할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떠한 상처도 낭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우리가 겪었던 가장 큰 아픔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역에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 아픈 경험들, 피했으면 하는 상처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때로는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후1:4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 문제가, 그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역경과 고난의 때는 그 어떤 때보다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시련이 직면했을 때 가져야할 관심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임할 때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좋은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닥쳤을 때, 오히려 내게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외치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감사하십시오.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런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노라"고..."나의 당한 일이 내게도 복된 일이 되었노라"고..."나의 당한 일이 우리 모두에게 복된 일이 되었노라"고..."나의 당한 일이 이 민족에게도 복된 일이 되었노라" 이것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축복합니다.

【자유교회 소식】

1. 자유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실현되기 위해 힘쓰길 원하는 교회입니다. 기도와 전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2. 선교비로 적립하기로 한 일반재정의 50%(8월 적립금 $449.00)는 12월까지 적립한 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오늘부터 시작하는 주일 오후 예배는 당분간 주일 2부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모든 순서는 주일 낮 예배와 같이 진행됩니다.
4. 내일은 9/11 참사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바라며 테러의 종식과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자유교회 예배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253) 661-5436, 227-1775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인터넷 선교를 위해 자유교회 홈페이지를 준비 중입니다. 정식 홈페이지 오픈에 앞서 미니 홈페이지를 운영 중입니다.

http://cyworld.nate.com/libertycommunity

지난주 헌금통계

십 일 조:	$130.00	
감사헌금:	$70.00	
주일헌금:	$11.00	**합 계: $211.00**

금주의 중보기도

- 자유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여 이민교회에 새로운 영적 파도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 9/11 테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테러와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